

2019년 4/4분기 화성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보고서

2019. 9.



화성상공회의소

[조사진행팀]

- 목 차 -

I.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개요
3. 조사 항목
4.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작성방법

II. 조사 결과

1. 2019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
2. 화성지역 BSI 전망 및 실적 추이
3. 항목별 경기전망
4. 기업경영 핵심변수 조사결과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화성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2019년 3/4분기 경영실적과 2019년 4/4분기 경기전망을 파악하여 회원업체의 경영계획 수립과 유관기관의 경기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화성지역 중소기업 100개사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FAX 조사
- 조사 기간 : 2019. 9. 16(월) ~ 9. 25(수)
- 조사 기관 : 화성상공회의소

3. 조사 항목

- 전반적인 경기 실적 및 전망
- 매출액, 영업이익 등 항목별 경기실적 및 전망
- 대내외 리스크, 기업경영 핵심변수

4.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작성방법

- 분기별로 응답 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 분기와 대비하여 호전, 악화, 또는 불변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함.
-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경우에는 악화로 표시한 업체가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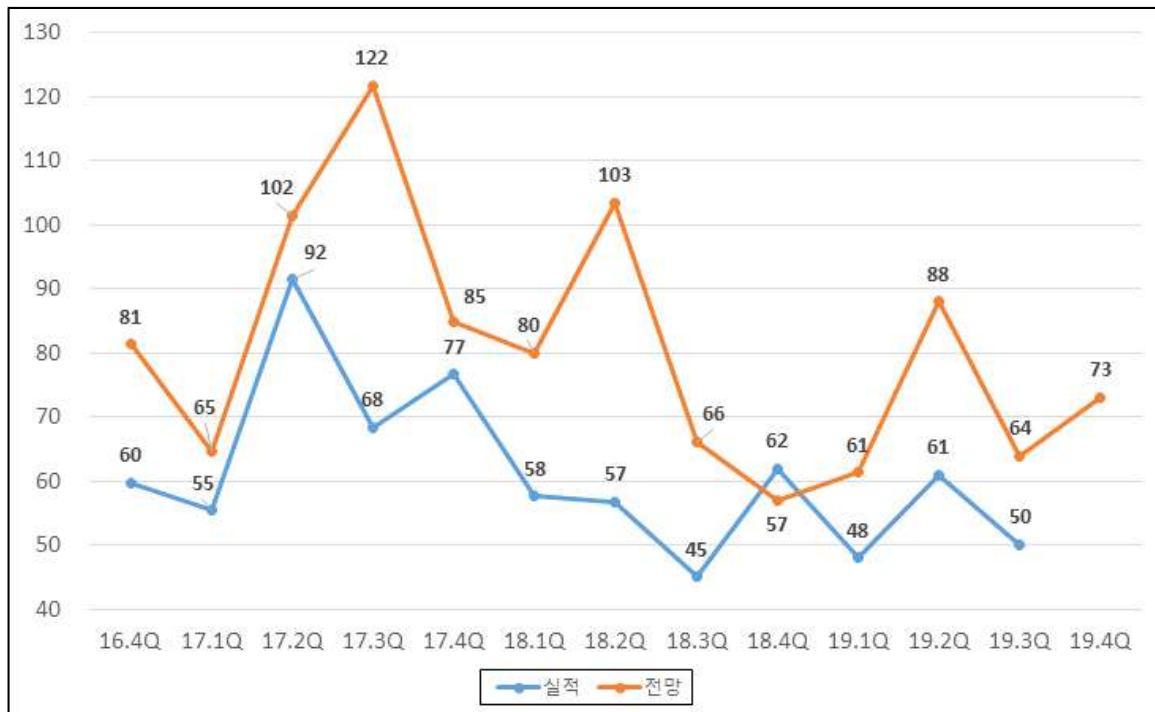
II. 조사 결과

1. 2019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

항 목	2019년 4/4분기	2019년 3/4분기	
		전망	실적
체감경기	73 (+ 9p)	64	50
매출(내수)	71 (+ 2p)	69	61
매출(수출)	87 (+ 6p)	81	78
영업이익(내수)	65 (+ 11p)	54	54
영업이익(수출)	81 (+ 6p)	75	75

※ ()는 전기 전망치 대비 증감

2. 화성지역 BSI 전망 및 실적 추이



$$\text{기업경기실사지수}(BSI) = \frac{\text{호전표시업체수} - \text{악화표시업체수}}{\text{총유효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BSI = Business Survey Index

$$0 \leq BSI \leq 200$$

3. 항목별 경기전망

□ 체감경기 실적/전망

(단위: %)

구 분		호 전	불 변	악 화
체감경기	2019년 3/4분기 실적추정 (전 분 기 대 비)	12.0	26.0	62.0
	2019년 4/4분기 전망 (전 분 기 대 비)	21.0	31.0	48.0

[체감경기] 2019년 3/4분기 체감경기 실적에 대해 ‘악화’응답이 62.0%로 가장 높았으며 ‘불변’의견이 26.0%, ‘호전’의견이 1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BSI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한 수치인 50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일본수출 규제, 美·中 무역 갈등 등의 통상 이슈와 태풍 ‘링링’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등이 겹쳐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위축되었던 점이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9년 4/4분기 체감경기 또한 악화 전망이 48.0%로 집계되었으며, 불변할 것이라는 의견이 31.0%,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의견은 21.0%로 나타나며 BSI지수가 73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 분기 전망치 대비(64) 9p 미약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하며 경기 불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가 표출되었다.

□ 매출액 실적/전망

(단위: %)

구 분		호 전	불 변	악 화
매출액 (내수)	2019년 3/4분기 실적추정 (전 분 기 대 비)	17.0	27.0	56.0
	2019년 4/4분기 전망 (전 분 기 대 비)	18.0	35.0	47.0
매출액 (수출)	2019년 3/4분기 실적추정 (전 분 기 대 비)	16.4	27.3	56.4
	2019년 4/4분기 전망 (전 분 기 대 비)	18.0	40.0	41.8

[매출액] 화성지역 제조업체의 2019년 3/4분기 내수 매출액 실적은 전 분기 대비 악화(56.0%) 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2019년 4/4분기 내수 매출 역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47.0%로 가장 높았다.

3/4분기 수출 매출액 실적 또한 전 분기 대비 악화(56.4%)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4/4분기 역시 수출 매출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41.8%로 가장 높았다.

□ 영업이익 실적/전망

(단위: %)

구 분		호 전	불 변	악 화
영업이익 (내수)	2019년 3/4분기 실적추정 (전 분 기 대 비)	12.0	30.0	58.0
	2019년 4/4분기 전망 (전 분 기 대 비)	15.0	35.0	50.0
영업이익 (수출)	2019년 3/4분기 실적추정 (전 분 기 대 비)	7.3	40.0	52.7
	2019년 4/4분기 전망 (전 분 기 대 비)	9.1	47.3	43.6

[영업이익] 2019년 3/4분기 내수 영업이익 실적에 관해 58.0%가 지난 분기보다 감소되었다고 응답하였다. 4/4분기에도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50.0%로 가장 높으며 경기 불안감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영업이익에서도 2019년 3/4분기 실적이 악화(52.7%)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4/4분기에서는 수출 영업이익이 불변할 것(47.3%)이라는 예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금 조달여건

(단위: %)

구 분		호 전	불 변	악 화
자금 조달여건	2019년 3/4분기 실적추정 (전 분 기 대 비)	7.0	51.0	42.0
	2019년 4/4분기 전망 (전 분 기 대 비)	9.0	48.0	43.0

[자금 조달여건] 2019년 3/4분기 자금 조달여건에 관해 과반수 이상인 51.0%가 지난 분기와 변함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4/4분기에도 역시 불변일 것이라는 의견이 48.0%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4. 기업경영 핵심변수 조사결과

[1] 2019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정부전망치: 2.4~2.5%)

- ① 2% 이하 (32.0%)
- ② **정부전망치 이하 (51.0%)**
- ③ 정부전망치 수준 (16.0%)
- ④ 정부전망치 상회 (1.0%)
- ⑤ 작년 성장률 수준 또는 이상 (0.0%)

[2] 귀사의 올해 영업이익(실적)이 연초 세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목표치 미달 (72.0%)**
- ② 목표치 달성(근접) (25.0%)
- ③ 초과 달성 (3.0%)

[2-1] (2번에서 '① 목표치 미달'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모두선택)

- ① 美·中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38.9%)
- ② 日 수출규제 (13.9%)
- ③ 中 경제둔화 (20.8%)
- ④ 최저임금·주52시간 등 고용환경 변화 (47.2%)
- ⑤ **내수시장 둔화 (84.7%)**
- ⑥ 기업관련 정부규제 (13.9%)
- ⑦ 환율·유가 변동성 심화 (13.9%)
- ⑧ 기타 (6.9%)

[3] 작년과 비교해 올해 귀사의 투자 추이는 어떻습니까?

- ① 호전 (11.0%)
- ② **불변 (56.0%)**
- ③ 악화 (33.0%)

[3-1] (3번에서 '③ 악화'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서비스·신산업 등 신규투자 기회 봉쇄 (0.0%)
- ② **불확실성 증대로 소극적 경영 (75.8%)**
- ③ 국내시장 포화로 투자처 부재 (3.0%)
- ④ 원자재값 변동성 확대 (21.2%)
- ⑤ 기타 (0.0%)

[4] 수출·투자 부진과 내수위축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주체인 기업과 정부, 국회의 경제 활성화 노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해보신다면?(10점 만점)

- | | |
|--------|---------|
| (1) 기업 | (6.99점) |
| (2) 정부 | (4.47점) |
| (3) 국회 | (2.77점) |

[5]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정책과제 하나를 꼽는다면?

- | | |
|----------------|----------------|
| ① 파격적 규제개혁 | (30.0%) |
| ② R&D·인력 지원 강화 | (12.0%) |
| ③ 고용·노동정책 탄력적용 | (40.0%) |
| ④ 자금조달 유연화 | (18.0%) |